



주 일 가 정 예 배 순 서 지

목 상 기 도 _____ 다 같 이
신 앙 고 백 _____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 송 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 다 같 이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들려도 하나님의 양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에 보기에 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대 표 기 도 _____ 담 당 자

성 경 봉 독 _____ 이사야 24장 1-13절 _____ 다 같 이

- 생명수샘 1월 31일(주일) 생명수샘 말씀 -

설 교 ——— 온 땅 의 심 판 ——— 인 도 자
(뒷 면 참 조)

합 심 기 도 _____ 다 같 이

주 기 도 문 _____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심판 / 이사야 24:1~13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13~2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24~27장까지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그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개인이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주인과 종, 여주인과 여종, 사는 이와 파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흠으셨으며,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고 세상을 공허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낫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신 일은 있지는 안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일 뿐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합니다.

본문 4~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며,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까요? 5절 말씀을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진리를 저버린 마귀의 말을 따라 행동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쇠잔하여 버리고 희망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을 '아멘' 하면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자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